

ue=0.029)의 두 변수이다. 이때  $R^2$  는 0.253이다. 둘째,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자(p-value=0.001), 성별(p-value=0.016), 교육(p-value=0.023)의 변수로 나타났다. 이때  $R^2$  는 0.154이다. 셋째, 자신이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기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상자(p-value=0.012)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때  $R^2$  는 0.078이다. 넷째, 가족이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기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자신의 뇌사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p-value=0.012)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때  $R^2$  는 0.154이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뇌사 기증자 유족 지원금 인상, 장기기증카드 제도의 실시, 장기제공방안 및 기증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방안, 그리고 뇌사기증자에 대한 추모뇌사 장기기증자에 대한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비를 세우는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유족지원제도의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뇌사자들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KSPM-131

### 북한이탈주민이 본 북한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viewed by North Korea refugees

문옥륜<sup>1)</sup>, 이철형<sup>1)</sup>, 백지은<sup>1)</sup>, 윤재현<sup>1)</sup>, 김동식<sup>1)</sup>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료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본 북한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12월간 「하나원」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는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2003년 6월-12월까지 총 6차례 「하나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조사가 가능하였던 2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직접면접을 기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사항, 질병보유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같은 건강상태, 의료이용경험, 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실정에 맞게 변형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모든 연구자료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인식도, 만족도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태도 등을 일차적으로 빈도를 기술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영상황 인식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병원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료제도 중 의사담당제를 74% 정도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유무는 연령, 성,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 20% 정도만이 담당의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의료이용 후 약 80% 정도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45% 정도가 의료비 이외의 비용 및 물품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기타 비용 및 물품 지불여부는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병원 이용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매우 강했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 정부가 보건의료 재정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면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재정투자의 감소에 따른 병원시설의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조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병원서비스가 질적으로 매우 열악해져 북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KSPM-135

### 손상으로 인한 소아 사망에 대한 연령별 변이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연관성

The effect of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on the death from injuries in children

박주옥<sup>1)</sup>, 황승식<sup>2)</sup>, 김창엽<sup>3)</sup>, 문옥륜<sup>3)</sup>

(1)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최근 손상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각국에서 손상의 발생 양상과 그 요인을 밝히는 것을 무척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아 사망의 제 1원인이 손상에 의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소아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규모와 실태를 국제적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둘째, 손상으로 인한 소아의 사망에 대한 연령별 변이를 분석하며 셋째, 사회 경제적 위치와 손상으로 인한 소아의 사망의 위험성간에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는 출생 및 사망 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출생한 소아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을 ICECI(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y)에 의해 재분류하여 각 기전별, 연령별 사망률을 구하였다. 출생 자료를 근거로 아버지의 직업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출생지역의 박탈여부, 십대부모 유무에 따른 손상으로 인한 소아 사망의 위험비를 분석하였다.

**결과:** 관찰기간동안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총 28.06건/10만 인년이었고 이중 비의도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26.08건/10만 인년이였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손상 사망률을 나타냈으며, 손상의 기전별로는 운송수단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